

한국고분자학회 의료용고분자 부문위원회 2025 워크숍, 최신 지견 공유의 장으로 성료

일 시: 2025년 5월 22일(목) ~ 24일(토)

장 소: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

지난 2025년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강원도 원주의 수려한 자연 속에 위치한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한국고분자학회 의료용고분자 부문위원회(위원장: 이수홍 교수, 동국대학교) 2025 워크숍’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워크숍 장소로 향하는 길목에는 학회 의료용고분자 부문위원회의 로고와 DNA·분자구조 아이콘이 조화롭게 디자인된 대형 배너가 설치되어 참가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배너에는 공동 주최 및 후원 기관으로 참여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RLRC, 4D센터, 대학중점연구소와 전남대학교 RLRC 그리고 기업 후원사인 디앤디파마텍, 엘림글로벌-LCI의 명칭이 선명히 기재되어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국내외 우수 대학의 교수진, 정부출연연구소 및 기업 연구원, 산업계 관계자 등 총 79명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학술 교류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조망되는 쾌적한 환경과 최첨단 AV 시스템을 갖춘 볼룸에서 총 여섯 건의 비중 있는 초청 강연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워크숍의 핵심 학술세션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연구소 변영로 교수의 발표로 문을 열었습니다. 변 교수는 ‘암세포 및 암조직 내 신생혈관내피세포를 표적하는 항체-약물 접합체(ADC)’ 연구의 최신 지견과 접근 전략을 심도 있게 다루며 향후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영주 박사는 ‘의료용 소재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중심병원 플랫폼 활용’ 전략을 소개하며, 기초 연구 성과가 실제 임상에 적용되기까지의 과정과 지원 방안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습니다. 다음으로 KAIST 생명과학과 남윤성 교수는 ‘멀티라멜라 지질베지를 기반 나노백신’ 개발 연구를 주제로 새로운 백신 플랫폼의 설계와 그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오후 5시부터 진행된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는 후원사 관계자 및 동료 연구자들과 기술 협력 및 상용화 방안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짧은 휴식 후 재개된 세션에서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 화학과 유자형 교수가 ‘Supramolecular lysosome-targeting chimeras (Supra-LYTAC) for targeted protein degradation’라는 주제로, 표적 단백질 분해 기술의 혁신적인 접근법과 그 응용 가능성에 대해 발표하여 청중의 이해를 높였습니다. 이어 전남대학교 의공학부 권용수 교수는 ‘Advanced biomaterials in nanomedicine and innovative therapeutic strategies for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을 주제로, 나노의학 기반 첨단 바이오소재를 활용한 혁신적인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 전략 연구 동향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권유욱 교수는 ‘줄기세포 유래 추출물을 이용한 재생 전략(Rejuvenation strategies using stem cell extracts)’에 대한 연구 내용을 공유하며, 조직 재생 및 항노화 분야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발표 세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참가자들은 준비된 만찬을 함께하며 활발한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낮 동안 논의된 핵심 연구 주제와 향후 공동 연구 및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으며, “다음 워크숍에서는 더욱 발전된 연구 성과를 공유하자”는 등 미래지향적인 의견들이 오가며 학문적 열기를 더했습니다.

맑은 공기와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오크밸리 리조트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의료용 고분자 분야의 기초 연구부터 임상 응용 및 상용화 전략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최신 동향과 깊이 있는 지견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해당 분야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고 상호 협력의 발판을 다지는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우람(성균관대, 의료용고분자 부문위 학술위원)〉

